



Since 2011

2017.  
11.10(금)  
19:00~

케이아트디딤홀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18길 30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60-14

G24 Band 6TH Concert

어모리재미라



HANSAE  
QUARTERLY  
MAGAZINE

VOL. 014

Han  
sa Ein

AUTUMN



한세엠케이는 1995년 설립된 이후 국내 캐주얼 의류 브랜드 강자에서 글로벌 패션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세계수준의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패션 문화를 선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한세엠케이'로 사명을 변경했다. 사명에 관한 이야기와 더불어 '한세엠케이'로 지은 오행시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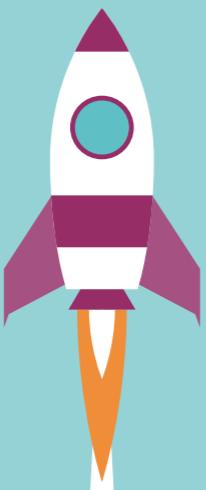
#### 스트릿 캐주얼 'NBA'

미국프로농구협회 'NBA'와 팀로고, 캐릭터 및 이미지를 활용한 캐주얼 의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2011년 론칭한 스트릿 캐주얼 브랜드다. 스포츠와 힙합을 기반으로 한 타깃 고객층의 메가 트렌드에 맞물려 백화점 내 스트릿컬쳐 조닝의 리딩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시카고 불스, 골든 스테이츠워리어스 등 전설적인 농구팀을 모티브로 스포티한 의류에서부터 기존 캐주얼 브랜드와는 차별화된 티셔츠, 팬츠, 점퍼 등 힙합스타일의 유니크한 제품군을 선보인다. 특히, 2013년부터 국내 최대 규모의 힙컬처 페스티벌 'NBA버저비트'를 매년 개최하여 스포츠와 패션, 문화가 융합된 브랜드로 아이덴티티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 스타일 포 유어 퍼포먼스 'LPGA골프웨어'

전세계 프로골퍼들의 최고의 무대이자, 최정상의 골프 브랜드인 LPGA(Ladies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 여자프로골프협회)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2016년 가을 LPGA Golf Wear를 론칭했다.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LPGA협회 공인 골프웨어를 전문 매장을 통해 발매하고 있고 LPGA무대에서 한국선수들의 눈부신 활약과 더불어 골프웨어브랜드로서의 별류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젊은 골퍼들을 타깃으로하는 영(Young)골프를 지향하며 젊고 스타일리시한 감각의 퍼포먼스 골프웨어를 제안한다.



## 한세엠케이, 세계의 주인공은 나다!



#### 베이직 캐주얼 'TBJ'

1983년 데님브랜드 'The Best Jean'으로 출발하여 1995년 TBJ로 새롭게 론칭한 대표 캐주얼 브랜드다. 17~22세 젊은 남녀 고객을 타깃으로 하며 고품질의 제품을 합리적 가격으로 제안하는 베이직&트렌디 캐주얼을 지향한다.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고 표현 욕구가 강한 청소년과 대학생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패션성과 트렌드를 강조한 스타일을 선보인다.



#### 스타일리시 어반 캐주얼 'ANDEW'

2001년 한세엠케이가 론칭한 두번째 브랜드, 스타일리시 어반 캐주얼 ANDEW는 모던하고 시크한 컨셉으로 백화점 내 스타일리시 캐주얼 조닝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았고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현재는 미니멀하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컨셉의 캐주얼을 선보이고 있다. ANDEW는 도시적 패션 감각의 젊은 대학생과 센스있는 오피스 아웃핏을 선호하는 2030 직장인을 위한 어반 캐주얼 룩을 제안한다.



#### 오리지널 빈티지 캐주얼 'BUCKAROO'

2004년 공식 론칭한 버커루는 한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데님 캐주얼의 강자다. 1950~60년대 JEAN의 이미지를 재해석한 RETRO 모더니즘을 컨셉으로 한다. 전문 디자이너와 워싱 기술 장면에 의해 선보이는 그래픽과 워싱 기법을 통해 차별화된 빈티지 스타일의 프리미엄 JEAN 캐주얼 제품을 주력으로 제안한다. 특히, 아시아인의 체형에 최적화된 디자인 패턴과 소재 사용으로 20~30대의 두터운 마니아 고객층을 가지고 있다.

## 한세실업 1C91팀 퓨기원 주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세 번 봐도 보고 싶은데 어떡하죠?  
엠 엠케이트렌드의 새 이름!  
케 케미가 좋은 것 같은 한세엠케이!  
이 이제 다같이 앞으로 나아갑시다

## 한세실업 551팀 윤태훈 주임

한 한국에서  
세 세계로 성장해 나아가는 한세와  
엠 엠케이가 함께하여 이제는 Fashion world wide에서  
케 K-Fashion world wide를 하루 빨리  
이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한세엠케이 디자인팀 김아라 주임

한 한국에서  
세 세계로 뻗어가는  
엠 엠케이트렌드의 새로운 이름 한세엠케이  
케 K패션을 주도하는  
이 이 시대의 leader

## 한세드림 마케팅팀 은수빈 대리

한 한국뿐만 아니라  
세 세계 패션을 이끌어갈  
엠 엠케이트렌드가 한세엠  
케 케이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이제부터 시작될 패션계의 한세엠케이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 에스2나 시스템보안파트 CERT 김건법 사원

한 한국에는 한세 그룹이 있습니다  
세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글로벌 기업이죠  
엠 엠케이는 한세 가족입니다  
케 케이(Korea) 트렌드를  
이 이끌어 주세요 V^VV

한 (어머) 한세 그룹과 엠케이트렌드가  
세 세상에 한 가족이었다네요  
엠 엠케이도 한 기숙하는데  
케 케이(Korea) 트렌드는  
이 이제 한세가 주도하겠습니다. 주식 사야겠네요 ~

한 한류를 넘어  
세 세계로 도약하는  
엠 엠케이 트렌드  
케 케이 마켓을 석권하고 글로벌  
이 리(이)더가 되겠습니다

한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안되는 세상이죠  
세 세 가지도 부족하죠, 의류 사이즈도  
엠 M, L, XL 등 다양하잖아요?  
케 케이처럼 누르면 바로 나오는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이 이제는 한세엠케이를 따라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 신나는 놀거리와 맛있는 먹거리 한세 가족들의 행복한 일상

한세예스24홀딩스는 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회원사이며, 2009년부터 임직원 가족들이 AMCHAM에서 주최하는 PICNIC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8번째 참가한 한세 가족들의 행복한 하루를 공개합니다.

9월 2일, 미사리 경정공원 위밀업장 내 미니잔디축구장에서 즐거운 가족 행사가 열렸습니다. AMCHAM Labor Day Picnic은 AMCHAM 회원 및 후원기업 임직원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식 행사이입니다. 맥도날드, 파파존스, 조스떡볶이, 호가든 맥주 등의 푸드트럭에서 맛 있는 식음료를 즐길 수 있고 맛은 편 체험 부스에서는 요가, 국제학교, 티셔츠 만들기, 연만들기, 모자&기방 만들기 등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잔디에 직접 텐트나 돗자리를 설치할 수 있고 에어바운서나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가족들과 소풍 가는 기분으로 참여하였는데, 아이들은 텐트 쳐놓고 그림도 그리고, 넓은 잔디에서 뛰어 다니기도 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맥도날드 아저씨와 가위바위보에 이어서 선물을 받은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네요! 더운 날씨에 고생하며 그림을 완성한 큰 아이가 상을 받게 되어 더욱 기억에 남는 행사가 되었네요~

경영개선팀 황한경 과장

화창한 가을 날씨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었고, 특히 소소하지만 아이들이 재밌게 놀 수 있는 소규모 풀장과 놀이기구 및 게임 등이 좋았습니다.  
1B61팀 이왕호 과장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Tent 설치부터 음식, 따뜻한 햇살 아래 각종 행사 참석...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단지 음식 준비량이 적어서 선택폭이 적었던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81부 편도준 차장



전체 그림 중 10개가 선정이 되었고 한세에서 두 작품이 입선되었다고 하네요

작년과 비교해 보면 음식을 제공할 때 쿠폰을 사용했습니다. 파라솔이나 의자 없이, 개인 텐트 및 돗자리를 사용해야 하는데... 땅볼에 쳐야하기 때문에 많이 더웠네요~ 아이들이 놀이 기구들은 태울만했지만... 인기가 많아 사람이 너무 많았던... ^^  
3A22팀 이남호 대리

행사 당일 날씨가 매우 좋아 야외에서 즐기기 좋았습니다만, 사생대회 외에 아이들이 즐길 특별한 행사, 이벤트가 없는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2B22팀 심가섭 과장



## 천연 잔디 위에서 꿈을 키우는 아이들 한세드림, '제9회 컬리수축구대잔치리틀K리그'

2013년 경기도 오산의 1회 대회를 시작으로 수원, 용인, 안산, 대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매년 2회씩 개최하여 올해 5년차를 맞이한 한세드림'컬리수 축구대잔치 리틀K리그'.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 천연 잔디 위에서 아이들의 꿈 또한 푸릇푸릇하게 웃어 올랐다.



### 회를 거듭할수록 관심도 커져

한세드림이 9월 2일부터 이틀간 대구 스타디움 보조경기장에서 '제9회 컬리수 축구 대잔치 리틀K리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는 한세예스24홀딩스와 한세드림이 주최하고, (사)한국유소년축구교육원이 주관, 대구광역시가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유치원 어린이팀 및 유소년팀 대상 축구대회다. 이번 대회는 지난 시즌 68개팀보다 12개 팀이 늘어난 총 80개팀이 참가해, 더욱 활기찬 경기를 펼쳤다.

'대구 스타디움 보조경기장'은 구장 전체가 천연잔디로 구성되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분위기에서 경기에 임할 수 있었다. 천연잔디는 인조 잔디에 비해 지면 온도가 2배 가량 낮고, 충격 완화 효과로 부상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공기 정화에도 탁월하다.



### 축구 외의 다양하고 재밌는 이벤트

현장에는 대구를 비롯해 김천, 구미, 포항, 진천, 강릉, 사천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어린이 축구 선수단과 가족, 관계자들이 약 4000여 명 참석했다. 경기는 전 후반 각각 10분, 팀 별 3게임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경기 후에는 승패에 상관없이 참가 선수 전원에게 컬리수 유니폼과 메달, 축구공을 자급했다.

본 경기 외에도 가족 및 방문자들을 위한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준비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컬리수는 앱을 다운 받고 참가 선수들의 유니폼에 인쇄된 브랜드 로고를 스캔하면 F/W 가을 신상품을 가상으로 입어볼 수 있는 '증강현실 체험'을 새롭게 준비했다. 이와 함께, YES24와 ISTYLE24 앱 설치 시 선물을 증정하는 '다운다운 이벤트'도 진행해 푸짐한 사은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버블체험전, 캐리커처, 페이스페인팅, 행운의 롤렛 등의 현장 행사는 그대로 유지되어 함께 온 가족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한세드림 임동환 대표는 "대구 대회는 이번이 4번째인데, 항상 열렬히 환호해주시고 협조해주셔서 이번에도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며 "컬리수 축구대잔치가 단순히 아이들의 축구경기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 주민들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음악이 있어서, 서로가 있어서 신나는 밴드 밴드동호회 G24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른다. 연습실에서는 편안하게 자유로운 연주를 즐기고, 무대 위에서는 함께 만드는 음악과 뜨거운 호응을 즐긴다. 술잔 기울이며 좋아하는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뒷풀이의 재미는 덤이다. '글로벌 기업'의 '그룹사운드'를 표방하는 G24에게 밴드는 곧 즐거움이다.

글\_김수영 사진\_인지섭

## 함께 성장하는 열린 밴드, G24

한세 임직원으로 구성된 G24는 올해로 7년째 활동 중인 사내 직장인 밴드. 밴드 음악의 '그룹사운드(Groupsound)'와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회사의 지향점인 '글로벌(Global)'의 의미를 담아 G24라는 이름으로 2011년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2012년 제1회 정기공연을 시작으로 매년 정기공연과 미니 콘서트, 초청공연 등을 선보이며 한세를 대표하는 밴드로 성장해 왔다.

밴드 G24 멤버는,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고문을 맡아 정신적인 지지 역할을 하고 있는 수출7부문 윤권식 부사장을 필두로 소속 회사도 직급과 연령도 다양한 남녀 25명이다. G24에서 기타와 보컬 그리고 회계를 맡고 있는 한세실업 HR팀 박현욱 주임은 한세 임직원이라면 누구에게나 밴드 멤버로 활동할 기회가 활짝 열려 있다고 말한다. 직장인 밴드라고 하면 학창시절 악기 좀 다뤘던 혹은 아마추어 밴드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G24에서라면 초심자도 주눅 들 일 없이 밴드 음악에 도전할 수 있다.

"제 경우만 봐도 G24가 얼마나 열린 밴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입할 당시 밴드 경험이 전무한 인턴이었거든요."

물론 대학 밴드 동아리로 활동하던 시절이 그리워 G24 멤버가 되었다는 동아출판 안산공장 관리팀 김유현 대리처럼 가입 전부터 밴드 경험이 풍부한 실력자들도 있다. 하지만 대

부분 멤버는 G24에서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며 악기 연주를 배우거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등, 밴드 안에서 실력을 쌓아 나가고 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직장인 밴드에서 이렇게 멤버 개개인의 성장이 두드러지는 데는 연주 연습과 공연 준비를 돋는 종합음악인 배상운 디렉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신입 멤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분위기의 영향도 크다. 밴드를 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G24의 문을 두드린 동아출판 과학교과서팀 박아름 대리도, 지금은 어엿한 드러머로 활동하고 있다.

"저는 G24에 있는 멤버도 다를 줄 아는 악기도 없이, 신입 멤버 모집 공고를 보고 덜컥 메일을 보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창립 이래 메일로 가입 신청을 한 사람이 저 하나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잘하든 못하든 누구 하나 소외되는 사람 없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모두들 도와주셨어요."

## 아마추어답게 즐기며, 프로처럼 멋지게

밴드 음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호흡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정인데 개인 연습도 소홀히 할 수 없으니 꽤 치열한 연습이 필요할 것 같지만, G24 연습실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기만 하다. 강습 위주로 진행되는 초반에 비해 공연을 앞두고는 사뭇 진지한 연습이 진행

되긴 하지만, 부담이나 압박을 느끼다는 멤버는 없다. 연습량이 늘고 강도가 세져도 여유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취미로 음악을 즐기는 아마추어 밴드만의 기분 좋은 특권이다. 연습 분위기가 자유롭고 편안하다고 해서 공연까지 느슨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온전히 음악을 즐기는 멤버들의 흥과 끼가 생생하고 활기찬 공연을 만들고 있다. 창단 첫해부터 2016년까지 동호회장을 맡았던 해외법인 TG MAIN OFFICE 윤재웅 대리는, 적어도 한세 계열사 직원들 앞에서만큼은 G24의 무대가 아이돌 부럽지 않다고 말한다.

"첫 정기공연을 하고 6개월쯤 후에, 2012년 한세실업 30주년 체육대회에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때 게스트였던 브라운아이드걸스 앞에 공연할 계획이었는데, 스케줄 때문에 저희 공연이 바로 뒤로 밀린 거예요. 이 공연 망했구나 싶어 순간 좌절했지만, 막상 G24 공연이 더 반응이 좋아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죠."

사내 밴드인 G24를 각별한 애정으로 바라봐 주는 한세 임직원과 가족 관객들은 이후로도 G24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로 함께 뜨거운 무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 2015년 4회 정기공연 때는 프로 뮤지션들이 공연하는 대형 무대인 YES24 무브홀에 처음 서게 되어 긴장할 뻔했지만, 오프닝부터 열렬한 호응을 보내준 관객들 덕에 기죽지 않고 공연을 즐길 수 있었다. 2016년 5회 공연 때는 플래카드를 준비해 걸고 무대를 향해 꽃을 던져 주는 등,

G24 멤버뿐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감동을 선사했다. 당시 공연에 부모님을 초대했던 한세실업 경영개선부 박성열 부장은 그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

"제가 무대에 올랐을 때 '잘생겼다 박성열!' 외치며 열광해준 직원 분들 덕에 자랑스러운 아들 노릇 제대로 했어요. 그때 훌륭스 직원들이 만들어준 플래카드도 부모님이 쟁쟁 가셨죠. 지금도 고향 집에 있답니다."

멋진 관객들에게 어울리는 특별한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G24 역시 공연 수익금 기부, 라디오 공개방송 콘셉트의 이벤트 등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해외법인 원정 공연, 직장인 밴드 경연 입상, 자작곡 음원 발표 등 활동 무대와 영역을 넓힐겠다는 큰 포부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G24 멤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나게 즐겁게 함께 음악을 계속하는 것. 오는 11월 10일 저녁 7시 K-art 디딤홀에서 선보일 6회 정기공연은 지난 1년간 G24가 얼마나 신나게 음악을 즐겨 왔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많이들 오셔서 G24와 함께 음악의 매력에 빠져 보시기 바랍니다"며 자신 있게 초대장을 내미는 한세실업 재정부 김세한 부장. '에라 모르겠다'라는 범상치 않은 부제를 내건 올해 G24 정기공연이 어떤 특별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지는 공연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 YES24홍대던전 × 소녀전선 기획전

10월 중순 오픈예정 | 공식 일러스트 전시 | 소녀전선 라이선스 굿즈 판매



### 홍대던전 서브컬처복합매장

서울 마포구 홍익로 25(서교동 356-1) 3층 | YES24 중고서점 윗층



### GLOBAL HANSAE

## 한류의 중심이 되고 있는 땅! 폭넓은 고객층을 확보해가는 예스24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의 뒤를 이어서 무한한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한류공연뿐 아니라 웨스턴 가수들의 공연이나,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하여 폭넓은 고객층에게 예스24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게 할 예정이라고 하는 예스24 인도네시아의 활약상을 소개한다.



### 치열한 경쟁 속에 놓이다

인도네시아는 단일 국가로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17,500여 개의 섬과 300여 개의 언어를 갖고 있다. 석유, 동, 주석 등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팜유 등 대규모 플랜테이션 산업으로 동남아 국가 중 발전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인구는 2억 5천만 명으로 세계 4대 인구大国이고 인구 중 90%가 무슬림으로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이지만, 6가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예스24 인도네시아는 2011년 4월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11월 24일에 사이트([www.yes24.co.id](http://www.yes24.co.id))를 오픈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오픈 초기 인도네시아 내 한류의 영향에 힘입어 한류 제품 중 정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로 자리매김하여 음반, 도서 등 문화 관련 상품 부터, 의류, 집화, 생활가전까지 점점 판매를 넓하게 되었다. 2011년부터 인도네시아의 넓은 시장과 잠재력을 인지하고 시작된 해외 E-commerce 업체들(Lazada, E-bay, 11번가)의 인도네시아 진출과 인도네시아 10대 재벌 기업의 인터넷 쇼핑 사이트(djarum 그룹의 blibli.com, 리포 그룹의 mataharimall.com, 엠팩 그룹의 bukalapak.com) 구축, 2014년부터 시작된 일본(Softbank), 중국 자본(Alibaba, Tencent 등)의 기존 사이트 투자 및 인수로 (Tokopedia, Lazada 등) E-commerce의 경쟁은 과열되는 양상으로 전개되어 갔다.

### 특화된 경쟁력으로 자리를 잡다

이런 분위기에서 예스24 인도네시아는 틈새시장을 겨냥했다. 기존 한류제품의 판매로 인해 많은 한류 팬들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던 터라 한류공연과 연계하는 상품의 티켓판매가 가능했다. 2015년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6년 1월부터 YES24.COM에서 검증된 인터페이스와 발전된 기술로 만들어진 티켓 사이트(ticket.yes24.co.id)를 자체 제작하여 공식적으로 티켓판매를 진행하였다.

이 티켓 사이트는 기존 인도네시아 공연 티켓 전문사이트와 차별화를 두어 인도네시아 공연 티켓 사이트 최초로 모바일 버전과 앱을 제작하여 티켓 구매 고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했다. 티켓 사이트 출시 후, 우선 기존 고객 yes24.id의 고객인 한류 팬 층을 공략하기 위해 EXO, 소녀시대, SUJU, IKON 등 한류 아이돌 자카르타 공연의 메인 티켓 박스로 자리매김 하였다. 2017년 방탄소년단(BTS)의 한류공연, 아시아 투어의 일환으로 자카르타 공연을 기획했다. 중국을 근거로 둔 IME 그룹과 공동 기획하여 11,000장 티켓을 10분만에 매진하여 인도네시아 한류공연의 신기록을 썼다. 지난 9월 2일에는 KBS 뮤직뱅크 자카르타 공연을 단독 기획하고 인도네시아 최대 미디어 재벌인 MNC 그룹과 Media Partner로 삼아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무리하기도 했다. 2017년 두 공연으로 예스24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한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원전히 자리매김 하였다.

한류 공연 이외에도 다양한 고객층 확보를 위한 로컬 또는 웨스턴 공연과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부상하고 있는 EDM FESTIVAL 등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공연 문화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장기적인 사업을 위해, 공연기획사업도 별도의 법인 YES24 ENT INDONESIA를 2016년 11월에 설립하여 첫 공연으로 인도네시아 한국 문화원과 관광공사가 후원하는 NON VERBAL PERFORMANCE인 BIBAP 을 슈렉이나 애니 등을 공연했던 인도네시아 최고의 고급 뮤지컬 공연장인 CIPUTRA ARTPRENEUR에서 3일 5회 공연을 기획하여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 HEADLINE NEWS



무등 여러 수종의 나무로 만든 친환경 소재 텐셀을 적극 활용한 제품이다. 시그니처 라인 '360진'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뛰어난 스트레치성이 눈에 띈다. 텐셀 원단은 수분 흡수성이 좋고, 섬유 구조가 매끄러워 피부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원단 자체에서 주는 안정감과 특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워싱 공정을 최소화 한 심플한 스타일로 제작됐다. 가격은 7만 9800원에서 8만 9800원에 만나볼 수 있다.



FRJ가 서울산업진흥원(SBA)의 '2017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됐다. '하이서울브랜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만든 브랜드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서울 소재 중소기업 가운데 우수한 기술성과 사업성을 갖춘 기업에게 부여하게 된다. 에프알제이는 지난 13일 '2017 하이서울브랜드' 기업 지정서 수여식에서 신규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발되었으며, 향후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의 혜택을 지원 받아 제품 판로 확대 및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장에서는 수여식 외에도 '2017 하이서울패션쇼', 사업 네트워킹 파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에프알제이는 패션쇼에서 올해 F/W 주력 제품인 데님과 티셔츠를 선보였다. 특히, 성창식 대표가 모델들과 함께 직접 런웨이를 오르는 등 색다른 무대를 연출해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었다.



**I. 한세실업, 베트남 법인 직원들 국내 초청 교류**  
한세실업 베트남 법인에서 장기 근속 중인 현지인 직원 중, 우수 직원으로 선발된 9명이 한국 본사의 초청에 따라 서울을 찾았다. 지난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3박4일 일정으로 경복궁·청계천·한강 크루즈 등 서울 명소를 둘러보고 한정식 사식 등 한국 문화를 몸소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한세실업 베트남 법인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다. '글로벌 한세인' 행사는 한세실업이 운영하는 전세계 해외법인에서 근무하는 현지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1992년부터 시행돼 왔다. 한국 본사 방문과 한국 관광을 통해 한국 기업에 근무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동시에 그간 열심히 일한 직원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 2. FRJ '360텐셀 데님' 안전성과 친환경에 주목

최근 유해물질로 인한 제품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성'과 '친환경'이 하나의 소비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패션업계에서도 커피, 텐셀, 한지 등 다양한 소재의 아이템들을 잇따라 선보이며 고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글로벌 노마드 데님 브랜드 에프알제이(FRJ Jeans)의 '360텐셀 데님'은 전나무, 자작나



## 3. FRJ, 가을의 색 다른 해석을 담은 2017 F/W

**'글로벌 노마드' 화보 공개!**  
FRJ가 새로운 가을 감성의 2017 F/W 화보를 전격 공개했다. 이번 화보는 '당신에게 빠지다'라는 뜻의 '풀 인투 유(Fall into you)'에 풀(Fall)을 가을로 해석하여 '가을이 당신에게로 다가간다'라는 키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여행과 일의 경계를 넘나드는 글로벌 노마드의 일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촬영은 인천 공항, 송도 트라이볼에서 진행되었으며, 메탈릭한 구조물과 톤 다운된 이미지로 도시적인 느낌의 색다른 가을 분위기를 완성했다.

이번 아이템은 세련된 뉴욕현대미술관 '모마', 뉴욕의 자유분방한 예술과 문화가 살아있는 스트릿 '덤보' 등 상반된 두 가지 컨셉을 독특한 방식으로 믹스 구성해 눈길을 끈다. '앵글 스끼니', '테이퍼드 데님', '오버 티셔츠' 등 가을에 입기 좋은 아이템들을 적극 활용해, 편안한 캐주얼의 느낌과 세련된 시크함을 동시에 살려 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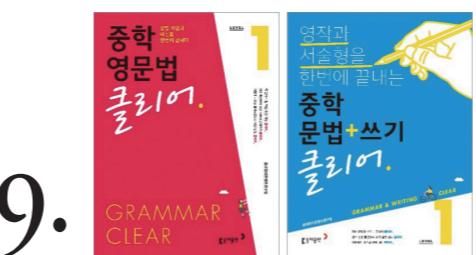


**7. 플레이키즈 프로, 공식 뮤즈 '영기스트(YOUNGEST)'에 2차 협찬 진행**  
한세드림의 스포츠 키즈 멀티스토어 플레이키즈 프로가 키즈플래닛의 키즈돌 '영기스트(YOUNGEST)'에게 2차 협찬을 진행했다. 플레이키즈 프로는 유아동복 시장에서 힙합이나 스트릿 패션이 데일리 아이템으로 자리잡고 수요가 높아지는 것에 발맞춰, 지난 4월 브랜드 컨셉에 걸맞는 영기스트를 뮤즈로 벌以致했다. 실제 영기스트에게 협찬한 2017 S/S 신제품은 92%의 판매율을 기록했으며, 착용 아이템에 대한 할인 이벤트 참여율도 타 프로모션 대비 4배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번에 영기스트에게 협찬한 2017 F/W 신제품은 '월업 월드마크 재킷', '플리스체크파치크루', '프렌치테리루렉스 후디', '플리스크루트니ップ', '사이드 지퍼 레깅스' 등 총 9종이다.



## 5. 예스24 F1963점 오픈

9월 24일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위치한 복합 문화 공간 F1963에 국내 최대 규모로 예스24 종고 서점이 오픈했다. F1963은 고려제강이 1963년부터 와이어 생산 공장으로 가동하다가 2008년 이후 제품 창고로 사용하던 시설이다. 예스24 F1963점은 종고도서뿐 아니라 책과 관련된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영역을 아우르는 공간으로 거듭나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문학, 인문, 역사, 경제 등 24개의 분야별 종고도서 약 20만권을 갖췄으며, 종고 절판 도서, 와국 빈티지북 등 희귀본은 물론 음반, DVD/Blu-ray, 도서 관련굿즈 등 분야를 넘나드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 9. 중학생을 위한 영문법, 영작 학습서 <클리어> 출간

동아출판은 중학생을 위한 영문법과 영작 학습서, 클리어 시리즈를 출간할 예정이다. 문법 개념과 내신을 한번에 끝내는 '중학 영문법 클리어'는 중학생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문법 개념과 시험에 나오는 출제 포인트로 내신 대비에 최적화된 교재이다. 또한 영작과 서술형을 한번에 끝내는 '중학 문법+쓰기 클리어'는 단계별 영작 집중 훈련으로 영문법과 쓰기를 동시에 학습하면서 어려워진 서술형 문제까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다. 각 수준별 3단계로 구성된 클리어 시리즈는 10월 말 출간 예정이다.



**8. 동아출판 2015 개정 교육과정 검·인정 교과서 합격**  
동아출판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초중고 검인 교과서는 초등에서 영어, 음악, 미술 등 총 8책이고, 중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등 총 20책이다. 고등학교 교과서는 영어, 수학, 통합사회 등 총 17책이 합격하였다. 동아출판 교과서는 초중고 전반에 이르는 심사 합격으로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동아출판 교실수업 지원 시스템인 두클래스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초중고 과목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미리 살펴볼 수 있다.



## 10. 중·고등학생을 위한 과학 학습서 <싸풀> 출간

동아출판은 중·고등학생을 위한 과학 학습서, 싸이언스 플러스(이하 싸풀) 시리즈를 출간했다. 중등 싸풀은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진도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연간 교재로 서술형이 강화된 내신 기본서이다. 고등 싸풀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통합과학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새로운 교과 과목에 대한 내신 대비가 가능한 교재이다. 고등 싸풀은 개념편과 실전편 2권으로 구성되어 한 제품 속에 개념서와 문제서가 함께 들어있는 특징이 있다. 중·고등 싸풀은 9월 말 출간됐다.